

증례Ⅶ - 1

연조직 관리를 위한 보철적 접근 증례

황대일, 백 진, 권호범, 이동환, 이석형, 이 옥, 임순호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치과학 교실)

치과에 있어서 심미의 영역은 과거에 비해 더욱 중요시 되고 있다.

특히 상악 전치부와 같은 심미적인 영역을 치료함에 있어 보철물을 포함한 자연치아의 “white esthetics” 뿐만 아니라 주위 연조직을 포함하는 “pink esthetics”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pink esthetics”을 이루기 위해서는 적절한 외과적, 보철적 술식이 시행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치간 유두 재생에 있어서 많은 외과적, 그리고 비외과적 접근법이 있어왔고 이러한 접근법들은 다양한 증례에 대한 해결책이 되어왔다. 그 중 보철적인 접근은 비외과적 접근 그 자체로, 또는 외과적 접근에 대한 보조 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치간 공극 해결을 위한 보철적 접근법에는 인접치 근심 외형의 변형, 치간 접촉점의 근단 이동, 임시 수복물을 통한 연조직 유도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외과적, 비외과적 시도가 모두 실패한 경우에 있어 도재를 이용하거나, removable gingival mask의 장착을 고려할 수도 있으나 이는 심한 조직 결함을 숨기기 위한 최후 수단으로 선택되어야 하겠다.

치간 공극을 해결함에 있어 단순히 치간 공극을 보철물을 통해 치간 접촉점을 아래로 내려 연장시켜줌으로써 메울 수 있겠지만 이 때는 심미적으로 부적절한 외형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적절한 연조직의 형태와 양이 존재한다면 인접치간의 근심 형태를 보철물 또는 자연치의 조절을 통해 연조직에 적절한 힘을 측방에서 가함으로써

치간 공극을 연조직으로 메우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cervical contouring concept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치료의 결과는 치아 접촉점과 치조정간의 거리를 고려하여 보철물의 외형을 형성한다면 더욱 향상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은 임플란트 수복물에서 또한 적용될 수 있다. 적절한 외과적 술식을 마친 임플란트의 수복에서 치간 유두 형성을 위해 치아 접촉점과 치조정간 거리를 고려하여 모형상에서 임시 수복물을 제작한다. 이후 cervical contouring concept을 이용하여 임시 수복물의 형태를 조정하고, 이를 최종 모형에 복제해 최종 수복물의 형태에 반영되도록 할 수 있다.

연자는 비외과적 수단, 또는 외과적 수단에 대한 보조적 수단으로서의, 보철적 접근법을 사용하여 연조직 관리를 시도한 증례를 발표하고자 한다.